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11월 7일 1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OMR카드에 작성하세요.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밀레종

선달 그믐밤이면 ‘제야의 종’이 울린다. 서울의 보신각에서도 울리고 경주 토함산 석굴암에서도 울린다. 제야의 종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것은 훌륭한 범종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의 종은 서양종과 달리 육중한 나무 봉으로 몸체를 두드려 울리게 하여 ‘땡 그랑땡그랑’ 하는 것이 아니라 ‘둥둥’ 하고 울린다. 그중 유독 우리 종은 맥놀이 현상의 긴 여운이 아름답다. 음향학에서는 ‘한국 종’이라는 별도의 학명이 있다. 반세기 전에 주한 미군 라디오 방송은 전국 사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범종 소리를 녹음하여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담아 테이블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에밀레종을 비롯하여 이미 깨져 칠 수 없는 오대산 상원사 종 등 수십 개의 종소리가 들어 있는데 영어 해설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온다. “서양의 종은 귀에 들리고 한국의 종은 가슴 깊은 곳에 울린다.”

종은 형태도 형태이지만 역시 소리가 좋아야 한다. 우리 범종 중에서 최고의 명작은 통일 신라 때(771년) 주조한 높이 3.7미터, 무게 18.9톤의 ‘성덕 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이다.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장중한 소리이면서도 옥처럼 맑은 소리를 울려 내어 많은 공학자가 그 음향 구조의 신비를 밝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장무 박사는 종의 키와 폭의 비율이  $\sqrt{2}=1.414$ 의 값에 가깝고, 당좌(봉이 닿는 자리)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라고 해서 야구에서 홈런 칠 때 공이 방망이에 맞는 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병호 박사는 종소리의 톤 스펙트럼을 분석한 다음 음색과 음질을 채점해 보니 다른 종들은 100점 만점에 50점대이며 무는데 에밀레종만은 86.6점이 나왔다고 했다.

무엇이 이런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 냈을까? 에밀레종 몸체에 새겨진 1,037자의 명문을 보면 ‘종소리란 진리의 원음(圓音)인 부처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런 종교 하는 마음으로 에밀레종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해 전부터 이 종을 더 이상 치지 않고 있다. 종은 쳐야 녹슬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제야의 종 소리가 울릴 때면 에밀레종 소리가 더욱 그리워진다.

1. 윗글을 읽고 질문하거나 정리한 <보기>의 내용을 ‘읽기 전/읽는 중/읽은 후’ 과정에 따라 나눈 것은?(4점)

< 보기 >

- ㉠ ‘종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일까?
- ㉡ 동양의 종과 서양의 종을 비교하는 것을 보니 설명하는 글이겠네.
- ㉢ ‘맥놀이 현상’이 여운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맥놀이 현상’은 뭘 말하는 거야?
- ㉣ 제목만 봐서는 에밀레종에 얹힌 전설을 다룰지, 에밀레종을 소개할지 잘 모르겠네.
- ㉤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에밀레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써 봐야겠어.

- ① ㉠/㉢㉣/㉤                      ② ㉡/㉢㉣㉤/㉠
- ③ ㉡/㉠㉢㉣/㉤                      ④ ㉢㉣/㉠㉡/㉤
- ⑤ ㉢/㉠㉡㉣/㉤

2. <보기>는 윗글을 읽고 정리한 독서노트이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4점)

< 보기 >

- 독서 노트: ㉠‘에밀레종’ 복원을 주장하는 글
- 우리 종: ㉡맥놀이 현상의 긴 소리 값 → ‘한국의 종은 가장 멀리까지 울린다.’
  - 최고의 명작: 성덕 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
    - ㉢저명한 음악가들이 음향 구조를 연구함
    - 종의 키와 폭의 비율, 스위트 스팟
    - 톤 스펙트럼
    - ㉣종교 하는 마음(종소리란 진리의 원음인 부처님의 목소리)
  - 더 찾아볼 것: ㉤에밀레종을 복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

- ① ㉠                      ② ㉡                      ③ ㉢                      ④ ㉣                      ⑤ ㉤

☞ 뒷면에 계속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에서 우리는 읽기가 단순히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읽기 전이나 읽는 중, 읽은 후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글을 읽기 전에 독자는 자신이 그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책의 제목이나 차례, 도표, 삽화 등을 훑어보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거나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홉 살 인생”이라는 책을 읽을 때, 먼저 제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표지와 차례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글의 갈래가 ‘소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볼 수도 있다.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 독자는 읽을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글의 내용에 더욱 쉽게 다가가게 된다.

(다) 글을 읽는 중에는 글 속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거나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이 좋다.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해 보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글의 성격이나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라) 글을 읽은 후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구조도를 만들어 보면서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글쓴이의 견해나 관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견주어 글을 비판하거나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더 찾아 읽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되돌아본다. 독자는 이러한 읽기 과정을 통해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읽기를 통해 확장되고 창조될 수 있으므로, 이 말은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낸다. 이렇게 창조해 낸 의미들이 하나씩 쌓여 가면서 우리의 사고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어지게 된다. 우리는 읽기를 통해 성장하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3.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① 주장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읽는다.
- ② 장면이나 인물의 심리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읽는다.
- ③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논리성과 타당성을 따져가며 읽는다.
- ④ 적절한 반어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평가하며 읽는다.
- ⑤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4점)**

- < 보기 > —
- ㉠ 읽기 전 활동을 하면, 읽을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 ㉡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면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 글을 읽은 후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해 볼 수 있다.
  - ㉣ 밑줄 긋거나 메모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 읽기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적극적 사고의 과정이다.

- ① 가
- ② 가㉠
- ③ 가㉡㉢
- ④ 가㉢㉣㉤
- ⑤ 가㉡㉢㉣㉤

**5.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4점)**

- ① 가세가 기울어도 그의 학구열을 막을 수는 없었다.
- ② 온갖 정성을 기울여 보았으나 결과는 늘 참담했다.
- ③ 다시 평상에 앉아 주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기울였다.
- ④ 신랑 집안이 신부 집안보다 꽤 많이 기울어 보인다.
- ⑤ 프라이팬에 기름병을 기울여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6. (나)에 쓰인 설명 방법과 같은 것은?(4점)**

- ① 향가, 고려가요, 시조 등은 고전 시가에 속한다.
- ②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 ③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다.
- ④ 영화는 스크린에서 상영된다는 점에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연극과 다르다.
- ⑤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 김치와 된장이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다.

**7. ‘읽은 후’ 활동의 효과로 옳은 것은?(3점)**

- ①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 ② 글의 내용에 더욱 쉽게 다가가게 된다.
- ③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④ 읽기 방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글쓴이의 관점을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11월 7일 1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이름: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술 뒤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의과 대학 시절 나는 의대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학교에 관심이 없었다. 의대 때 읽었던 예술 서적의 양이 의학 서적을 훨씬 능가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학년은 진급하여 흰 가운을 입고 임상 실습을 하게 되었다. 특히나 싫었던 외과 실습에서는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일이었다.

외모에서부터 권위가 넘쳤던 외과 교수님은 우리 병아리들에게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대상이었다. 앞서 가는 인턴들의 가운 뒷자락만 쫓아다니던 회진 도중, 대열이 갑자기 멈추고 말했다. 제일 앞의 교수님이 희끗한 머리를 내 쪽으로 돌리더니 질문을 하셨다.

“당신은 졸업하면 무슨 과를 전공할 생각이야?”

나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정신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복도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웃더니,

“정신과? 정신과라는 것이 병은 열 가지나 되고, 약은 다섯 가지쯤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을 향해 속으로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더더욱 외과 강의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 수업이 끝날 때쯤 그분이 한마디를 하셨다.

“내가 탐독하는 잡지가 일본에서 발행되는 ‘수술’이라는 잡지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수술 뒤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라는 말이었어. 의사가 수술 뒤에 약속이 있다면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겠지. 나는 여태 수술 뒤에 약속을 잡은 적이 없어. 공부하는 하지 않아도 의사가 되는 한 이 말은 잊지 마라.”

소설을 읽던 나는 깜짝 놀라서 교단의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다. 명의를 기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을 뒤로하고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의 신념과 성실함…….

나는 외과 의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환자를 볼 때 뒤의 일정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오직 집중할 때,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8.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한 학생이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4점)

< 보기 >

● 알게 된 점

- 대학 진학 시 적성보다 성적을 먼저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 정신과를 전공하더라도 외과 강의를 들어야 한다.

● 글쓴이의 생각

- ㉠

● 나의 생각

- 나도 현재의 일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① 명의를 되기 위해서는 신념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 ② 기계적인 수술만을 중시하던 외과 교수님을 경멸한다.
- ③ 환자를 볼 때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외과 의사가 되었다.
- ④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숙련된 의술이다.
- ⑤ 다른 과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정신과에 지원한 것을 후회한다.

9. 윗글을 읽는 이가 ‘읽는 중’에 떠올렸을 생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4점)

< 보기 >

㉠ ‘권위가 넘치는 외모’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 외과 교수님은 왜 하필이면 글쓴이에게 질문을 던졌을까?

㉢ 나도 어떤 선생님이 싫어서 그 과목까지 싫었던 적이 있어.

㉣ 제목을 보니 글쓴이는 수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겠군.

㉤ 수술이 무척 힘들니 수술 뒤에는 약속을 잡지 말라는 내용이 아닐까?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뒷면에 계속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善化公主 ㉡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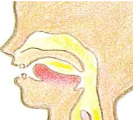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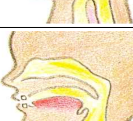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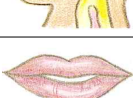
맛등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나)

나·랏:말쑈·미 中 等 國 · 꺾 · 에 달 · 아 文 明 字 · 쫓 · 와 · 로 서르 스몹 · 디 아 · 니홀 · 썩 · 이런 전 · 츠 · 로 어 · 린 百 · 빅姓 · 성 · 이 니르 · 고 · 저 · 흘 · 배 이 · 셔 · 도 只 · 춤:내 제 · 뜬 · 들 시 · 러 껴 · 디 :몬홀 · 노 · 미 하 · 니 · 라 · 내 · 이 · 를 爲 · 왕 · 흐 · 야 :어엿 · 비 너 · 겨 · 새 · 로 · 스 · 물여 · 뉘 字 · 쫓 · 를 땡 · ㅁ노 · 니 :사름:마 · 다 :히 · 여 : 수 · 비 니 · 겨 · 날 · 로 · 뿌 · 메 便 便 安 安 · 크 흐 · 고 · 저 홀 썩르 · 미니 · 라

(다)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음 위치	만들어진 원리	기본 자음자
어금닛소리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
혓소리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
잇소리 	이의 모양을 본뜬.	㉢
목소리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
입술소리 	입 모양을 본뜬.	㉤

(라)

만들어진 원리	기본 모음자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으니,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떠서이다.	.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떠서이다.	ㅡ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소리는 얕으니, 그 모양이 서 있음은 사람을 본떠서이다.	ㅣ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점)

- ① 첫 문장에서 뜻을 빌려 쓴 글자는 ㉠主, 隱 두 글자이다.
- ② 문장 전체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표기 방식이다.
- ③ 첫 문장에서 소리를 빌려 쓴 글자는 ㉠善, 化, 公, 主 네 글자이다.
- ④ 서동요는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식 중 하나인 이두로 표기되었다.
- ⑤ 우리말 표기와 한자의 소리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소리를 빌려 적는 것이다.

11. (나)를 읽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은주: 한글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자 체계 이구나.
- ② 지훈: 한글은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 ③ 지원: 한글은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독창적인 문자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구나.
- ④ 승훈: 한글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있구나.
- ⑤ 승찬: 한글은 백성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게 하려는 실용정신의 뜻으로 창제되었구나.

12. ㉠~㉤에 들어갈 자음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3점)

- ① ㄴ - ㄷ - ㄴ - ㄹ - ㄱ
- ② ㄴ - ㄷ - ㄹ - ㄱ - ㄴ
- ③ ㄴ - ㄷ - ㄹ - ㄴ - ㄱ
- ④ ㄷ - ㄹ - ㄴ - ㄱ - ㄴ
- ⑤ ㄱ - ㄷ - ㄴ - ㄹ - ㄴ

13. (다)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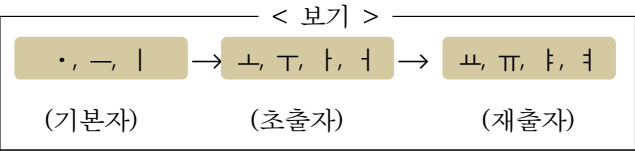


- ① ㉠은 합용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② ㉡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③ ㉡을 통해 거센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알 수 있다.
- ④ ㉢은 각자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⑤ ㉢의 원리에 따라 주로 겹받침으로 사용되는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11월 7일 1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이름:		

14. (라)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기본 모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초출자는 각 기본자에 ‘·’를 합하여 만들어졌다.
- ③ 재출자는 세 기본 모음자를 한 번 합하여 만들어졌다.
- ④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들을 결합하는 합용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 ⑤ 재출자 ‘ㅛ’와 ‘ㅠ’는 ‘ㅓ’와 ‘ㅕ’에 ‘ㅣ’를 합하여 만들어졌다.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의 창제 의지가 반영된 한글의 과학성은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글을 구성하는 각 기본 글자의 모양은 그 글자를 발음할 때의 혀나 입의 구조를 나타낸다. 즉, 한글의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ㄱ’과 ‘ㅋ’을 생각해 보면 ‘ㄱ’에 획을 더해 ‘ㅋ’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ㄱ’과 ‘ㅋ’의 발음은 비슷하다. 이를 통해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한글은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 조직된 문자인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글자는 한 가지 소릿값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한글의 특징인 ‘모아쓰기’는 정보 처리의 효율을 높인다. ‘불’은 세 음소 ‘ㅂ, ㄴ, ㄹ’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글자로 모아쓰기 때문에 각 음소를 낱낱이 분석하지 않아도 음절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말은 문법 요소가 보통 한 단어,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잡히겠다’라는 단어는 ‘히, 겠, 다’라는 각각의 글자를 보고 ‘피동형, 미래형, 평서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 조직되었다.
- ②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된다.
- ③ 하나의 글자는 한 가지 소릿값을 지닌다.
- ④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다.
- ⑤ 우리말의 문법 요소는 음소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1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① 입다

② 입었다

③ wear

④ wore

- ① ㉠과 ㉡은 음소를 나타내는 글자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적었다.
- ② ㉠과 ㉡은 문법 요소가 한 글자로 구성되어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③ ㉢과 ㉣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같다.
- ④ ㉤과 ㉥은 모아쓰기를 통해 정보 처리의 효율을 높였다.
- ⑤ ㉤과 ㉥은 음절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 뒷면에 계속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집안이 아니고서는 여자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예측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여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 ‘암글’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글이 우리나라 여자들의 지위 향상에 크나큰 이바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한문 배우기와 쓰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15세기부터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글자 아는 사람과 글자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고, 글자 아는 사람은 다시 한자 아는 사람과 한자는 모르되 한글은 아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민중은 한글로 글자살이를 하는 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하여 17세기 무렵부터는 대중 소설이 발달하여, 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해 나갔던 것입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등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글 소경과 글자살이의 혼란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임을 깨닫고 한글만으로 된 신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한글은 우리글이니 우리가 한자 대신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이 글자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신문을 한글만으로 적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에, 우리 글자살이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이상은 일제의 무력 침략에 부딪혀 계승·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 학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글쓰기를 통일하는 데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조선어 학회’에서는 주시경의 학문을 이어받아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어 학회에서는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전국 각지에 한글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과감히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광복이 되고 난 1948년에 우리 국회에서는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세종 대왕의 이상과 “독립신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합리성과 대중성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한글의 역사를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 (4점)

- ① 한글 창제는 여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 ② ‘독립신문’이 발간되면서 대중들의 독서 욕구가 충족되었다.
- ③ 대중 소설의 발달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④ 일제 강점기에도 애국 학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갔다.
- ⑤ 1948년에 한글 사용이 법제화된 이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좋은 책은 두 번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작가에 의해서, 한 번은 독자에 의해서이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책을 독자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책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중요한 문장은 외워야 하고, 마음에 담아 둘 만한 내용은 색색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다시 찾기가 쉽다.

표시 방법은 형광펜을 사용해도 좋고 메모지 같은 것을 붙여 놓아도 좋고 책장을 접어 놓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다시 펼쳤을 때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지 않고도 내게 필요한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문이 있거나 논리적 확장이 가능한 내용에는 반드시 또 다른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어떤 점이 의문점인지, 논리적 확장이 가능한 곳은 어떤 내용과 관련이 깊은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 권의 독서가 끝나고, 처음으로 돌아와 줄이 그어진 곳을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책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책은 더 이상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장식용 홍보물도 아니고 뜨거운 냄비의 받침대도 아니다. 책을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것은 내 인생의 자취이고 내 생각의 흔적이고 나의 노력이 담긴 보물이기 때문이다.

18. 글쓴이가 소개한 읽기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 보기 >

- ㉠ 배경지식 활용하기
- ㉡ 중요한 내용에 표시하기
- ㉢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 따로 정리하기
- ㉣ 책을 홍보물이나 냄비의 받침대처럼 가까이 두기
- ㉤ 의문이 있거나 논리적 확장이 가능한 내용은 반드시 다른 표시하기

- ① ㉠㉡                      ② ㉠㉢                      ③ ㉠㉤
- ④ ㉡㉢                      ⑤ ㉢㉤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11월 7일 1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이름: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작은아버지: 쌀을 사서 우리 조카 맛있는 거 해줘야지.

조카: 작은아버지, 쌀이 이렇게 많은데 또 사요?

작은아버지: 시골에서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쌀을 산다’고 한단다.

조카: 도시에서 쌀을 산다고 할 때와는 뜻이 정반대네요.

작은아버지: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을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조카: 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네요. 그럼 농촌에서 주로 쓰는 말이 또 있나요?

작은아버지: 어디 보자. ‘김매기, 명석, 삼태기, 왕겨’ 같은 말도 도시에서는 들어 보기 어렵겠지?

(다)

경선: 할머니, 저 가수가 요즘 잘나가요.

할머니: 어디를?

경선: 요즘 인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그렇구나. 나는 지난번 잔치 때 네 아버지가 불렀던 민요가 더 좋지만…….

경선: 그때 찍은 영상을 담아서 구워놓은 시디(CD)가 있는데 틀어 드릴까요?

할머니: 시디를 구워? 그것이 뭇이길래 생선처럼 구울 수 있단냐?

경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라)

#### 상황 1

철수: 오늘 미팅이 있는데 같이 안 갈래?

로버트: 내가 가도 되는 거야? 뭘 준비해야 하는데?

철수: 하하하, 준비는 무슨. 편한 마음으로 와.

#### 상황 2

로버트: 오늘 미팅이 있는데 너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어.

철수: 정말? 언제인데?

로버트: 이따 7시까지 오면 돼.

철수: 그래, 재미있겠다. 7시까지 갈게.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가)에서 준호의 말의 의미가 달라진 이유는 말을 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나)에서 작은아버지는 ‘쌀을 사다’를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③ (다)에서 할머니는 ‘잘나가다’를 ‘인기가 많다’로 이해하고 있다.
- ④ (다)에서 경선이와 할머니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⑤ (라)에서 ‘미팅’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이유는 상황1과 상황2의 상황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20. 다음 중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사회, 문화적 맥락은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말의 의미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한 가지로만 풀이된다.
- ③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의도와 목적은 크게 관련이 없다.
- ④ 의사소통을 할 때에 지역, 세대, 성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 뒷면에 계속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들아, 보아라.

너희가 10년 동안이나 제대로 공부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 한없이 세월만 흘렀구나. 그러나 이것도 하늘의 뜻이니 어찌겠느냐?

나도 젊은 시절에는 과거(科擧) 공부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희처럼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기도 했단다. 그러다가 경신년(1560년, 명종 15년) 겨울에 “맹자(孟子)”를 들고 관악산에 들어갔다. 몇 달에 걸쳐 스무 번을 읽고 나서야 겨우 “맹자”를 통째로 외울 수 있었지. 산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다른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맹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책에 담긴 깊은 뜻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군데군데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더구나.

이듬해 안동 하회 마을에 내려와 지내면서 “춘추(春秋)”를 30여 차례 읽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행운이 따랐는지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였단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공부를 하여 사서(四書)를 백여 번 읽었더라면 하고 언제나 후회를 한단다. 만일 그랬다면 내 학문이 오늘날처럼 보잘것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에게 늘 사서를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략>

학문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지만, 벼슬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에만 힘쓰고, 운명은 하늘에 맡길 뿐이다.

“통감(通鑑)”도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니, 어찌 읽지 않을 수 있겠느냐? “통감”을 읽는 것이 잘못된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벌써 중년이 되어서 할 일이 많은데, 아직껏 사서(四書)와 시서(詩書)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몇 해를 그냥 보내면, 끝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살림살이만 타는 못난 사내가 되고 말 것이다.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또한 경서(經書)는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 힘을 쏟아야 터득할 수 있다. 반면에 역사서는 경서를 읽으면서 틈틈이 훑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야 경서와 역사서를 모두 익힐 수 있단다.

아들들아, 잘 생각해 보아라.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글쓴이의 독서 방법은 글을 외울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 ②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들에게 독서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편지글 형식으로 아들이 읽기를 바라는 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통감과 같은 역사서를 우선적으로 읽어 성현의 생각을 배우길 바라고 있다.
- ⑤ 글쓴이는 ‘맹자’와 ‘춘추’를 수십 차례 읽은 후 책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22. 글쓴이가 경서를 중시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4점)

- 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함이다.
- ② 젊었을 때 경서를 읽지 않으면 후회하기 때문이다.
- ③ 경서에는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 ④ 경서를 통해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경서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고 경제적인 유익도 함께 주기 때문이다.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컴퓨터야말로 한글과 궁합이 매우 잘 맞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능의 기계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단 두 개의 숫자 ‘0’과 ‘1’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되풀이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순식간에 정보화 시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서양 음악의 경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 개의 음만을 가지고 모차르트의 고전 음악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랩 음악까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한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스물여덟 글자의 기호와 몇 가지의 규칙만으로 천지자연의 무한한 소리를 만들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한글의 특성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글은 다른 어떤 글자보다 과학적이며 현대 첨단 과학의 산물인 컴퓨터의 원리에 매우 잘 부합하는 문자입니다.

(나) 한글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지구 상에서 몇 백 년 몇천 년 후에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얼과 혼의 바탕이요 우리 문화의 근원인 한국어의 생존이 위태롭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 온 민족정기의 맥이 끊기는 엄청난 사변(事變)인 것이다. 이런 염려가 한낱 가정이나 기우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위험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유엔(UN) 환경 프로그램에 의하면 지구 상에 존재하는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11월 7일 1교시	출제자	최은진, 김은경, 김성희		
		반	번호:	이름:	

언어는 대략 5,000~7,000개이며, 앞으로 100년 동안 3,000개의 언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1년에 30개, 한 달에 2~3개꼴로 소수 민족·종족의 언어가 사어(死語)로 변하고 있다. 몇백 년 후면 아마도 몇 개의 중심 언어와 몇십 개의 주변 언어만이 명맥을 잇게 될 것이다. 사용 인구가 줄고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언어는 급격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한글이 누구나 익히기 쉬운 우수한 문자이고 한국어의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비켜 갈 수는 없다.

한국어가 겪을 위기의 근원은 우선 사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2007년 현재 한국어 사용 인구는 남한(4,800만 명)과 북한(2,400만 명)을 다 합쳐도 세계 인구 66억 7,000만 명 가운데 대략 1.1퍼센트에 그친다. 세계 인구 증가율은 2005~2010년 연평균 1.7퍼센트였지만 이 기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3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2025년 4,900만 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4,200만 명, 2100년에는 2,0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북한 인구도 정체 상태이니 희망이 없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어 역시 없어질 수밖에 없다.<중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집을 지켜 낼까. 당연히 한국어 사용 인구를 늘려 가야 한다. 국내에서는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외 한글 학교를 늘리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어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이 세계 곳곳에 공자 학원을 세우고 일본이 일본어 센터를 늘려 각기 중국어와 일본어 사용 인구를 늘리고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듯 우리도 문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영화와 드라마, 공연 등의 한류 문화를 세계인이 공감하고 애호하도록 가꾸고 보급해야 한다.

국제화는 불가항력의 흐름이지만 한국 스스로 국제화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교통어로서 한국어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한국어의 생존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의 국제 공개어로 채택된 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라는 위상 때문에 가능했다. 요컨대 국제 무대나 외국인에게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언어라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경제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문화, 특히 언어 교육의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의 핵심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야 할 때이다.

23. 윗글 (가)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한글은 컴퓨터 자판 배열이 효율적이다.
- ② 한글은 휴대전화에 잘 어울리는 문자이다.
- ③ 한글은 소리마디 구성이 두 가지로 일정하다.
- ④ 한글은 몇 가지 기호와 규칙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 ⑤ 한글은 컴퓨터 자판보다 글쇠가 적은 휴대전화 자판에서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24. 읽기 과정을 고려할 때 (나)를 ‘읽은 후’ 떠올린 생각으로 옳은 것은?(4점)

- ① ‘기우’는 무슨 뜻일까? 사전에서 찾아봐야겠다.
- ② 한 달에 2~3개꼴로 언어가 사라진다니 놀라운 일이군.
- ③ 한국어가 우리의 얼과 혼의 바탕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 ④ 언어란 정책에 따라 살아남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글이 우수하다면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해.
- ⑤ 경제,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 각국과 영향을 주고받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화는 불가항력의 흐름이야.

[25~27] <독서> ‘목님이 마을의 개’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 이 소설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김선달: 언제나 진지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 ② 차선이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신동이는 미친개가 아니고 오랫동안 굶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③ 동장 형제: 신동이를 미친개로 몰아 죽이려 했으며 신동이와 같이 있었다고 해서 자기 집의 개를 잡아 먹었다.
- ④ 신동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꾀꾀하게 살아가려하나 끝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
- ⑤ 간난이 할아버지: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신동이를 잡는데 큰 공을 세운다.

☞ 뒷면에 계속

26. 다음 낱말의 풀이가 옳은 것은?(3점)

- ① 목고대: 목청
- ② 조반: 저녁밥
- ③ 풍구: 바람개비
- ④ 단출한: 식구가 많은
- ⑤ 채전: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를 골라내는 그릇

27.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주인공인 ‘간난이 할아버지’의 생명존중 의식을 보여준다.
- ② ‘신동이’가 새끼를 낳는 것은 ‘백의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 ③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나’가 전해주는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인해 궁핍한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유이민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평안도 목념이 마을이 배경이다.
- ⑤ 신동이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우리민족의 수난을 암시하는 한편, 휴머니즘을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

※ 선택형 27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27문항)	
100	

< 객관식 정답 >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5	21	4
2	4	22	3
3	5	23	4
4	4	24	4
5	2	25	3
6	5	26	1
7	3	27	1
8	1		
9	1		
10	2		
11	2		
12	1		
13	5		
14	4		
15	5		
16	2		
17	2,3		
18	3		
19	2		
20	5		